경제 · 경영 이슈

□ 수출 경기 하강세 본격화

최근의 수출 둔화는 base effect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 약화, 중국 경기 하강, IT 경기의 미약한 회복 속도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 둔화가 전망됨

1. 수출 주도 성장 전략과 문제점

○ 수출 위주의 불균형 성장 지속

- 경제 성장은 크게 소비, 투자 등의 내수 부문과 수출의 외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화를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수출 의존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지속

- 이러한 경제 발전 전략은 우리나라가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빠른 성장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내수 시장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킴
  · 경제의 정책 방향이나 주요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이나 수출 연관 산업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상대적으로 내수 부문이 매우 취약한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고착화됨
  · 2003년말 현재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입/GDP)는 약 62%로 주요 선진국의 20% 내외, 중국의 50%보다 매우 높은 수준

○ 그나마 수출 부문 내에서도 '품목 집중' 및 '지역 편중'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

- (수출 품목의 집중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의 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 5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02년 42.4%에서, 2003년 43.0%, 2004년 1 8월중 44.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수출 지역 편중) 우리 수출 대상 지역은 특정 지역에 편중,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4년 1 8월중 각각 19.6% 및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EU, 일본 네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2년 57.5%에서 2004년중에는 59.5%로 크게 증가**
  -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2년 14.6%에서 2004년 1 8월중에는 19.6%로 급증**

< 주요 품목 및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1 8월
품목별 비중	반 도 체	10.2	10.1	10.6
	자 동 차	9.1	9.9	9.6
	무선통신기기	8.4	9.6	10.1
	컴 퓨 터	8.0	7.7	7.3
	선 박	6.7	5.7	6.6
	5대 수출 품목 합계	42.4	43.0	44.2
지역별 비중	미 국	20.2	17.7	16.7
	중 국	**14.6**	**18.1**	**19.6**
	E U	13.4	12.8	14.6
	일 본	9.3	8.9	8.6
	4대 수출 지역 합계	57.5	57.5	59.5

자료: 산업자원부.

○ 경제 구조의 높은 수출의존성과 수출 구조의 취약성으로,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위협받는 문제점을 유발

- **현재와 같이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상황하에서는, 세계 경제 상황에 의해 한국 경제 전체의 방향성이 결정**

-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일부 주력 수출 품목의 경기마저 예상외의 더딘 회복세가 나타나 수출 둔화에 의한 경제 성장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2. 수출 둔화 우려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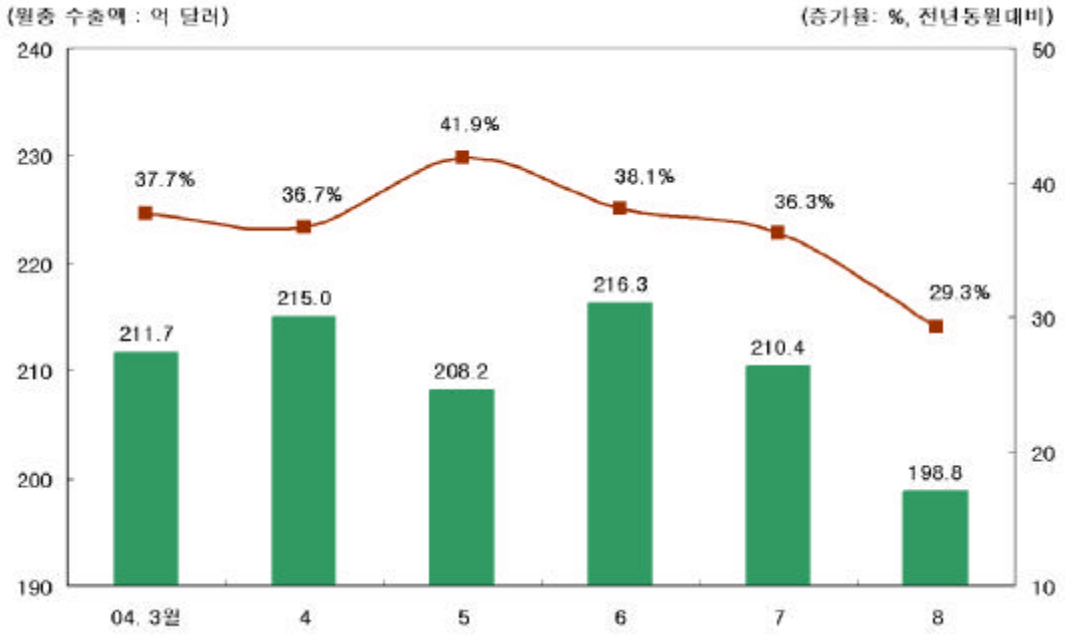
○ **수출은 2004년 중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됨**

- **(총수출)** 2004년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30 40%대를 지속하였으나, 5 6월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8월 현재 29.3%로 낮아져 있는 상황임

- **(지역별)**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은 7월 전년동월대비 51.4%에서 8월에는 35.7%로 15.7%p 급락
  - 이외에도 미국이 6월 44.8%에서 8월 35.6%로 둔화되었으며, EU도 같은 기간 71.7%에서 41.0%로 크게 둔화

- **(품목별)** 수출 상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도 5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69.1%에서 8월에는 30.5%로 크게 둔화
  - 무선통신기기의 경우에도 5월 81.7%의 증가율에서 8월에는 36.2%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8월중 무선통신기기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에 그치는 부진을 기록함

< 월중 수출액 및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산업자원부.
주: 8월은 1일에서 20일까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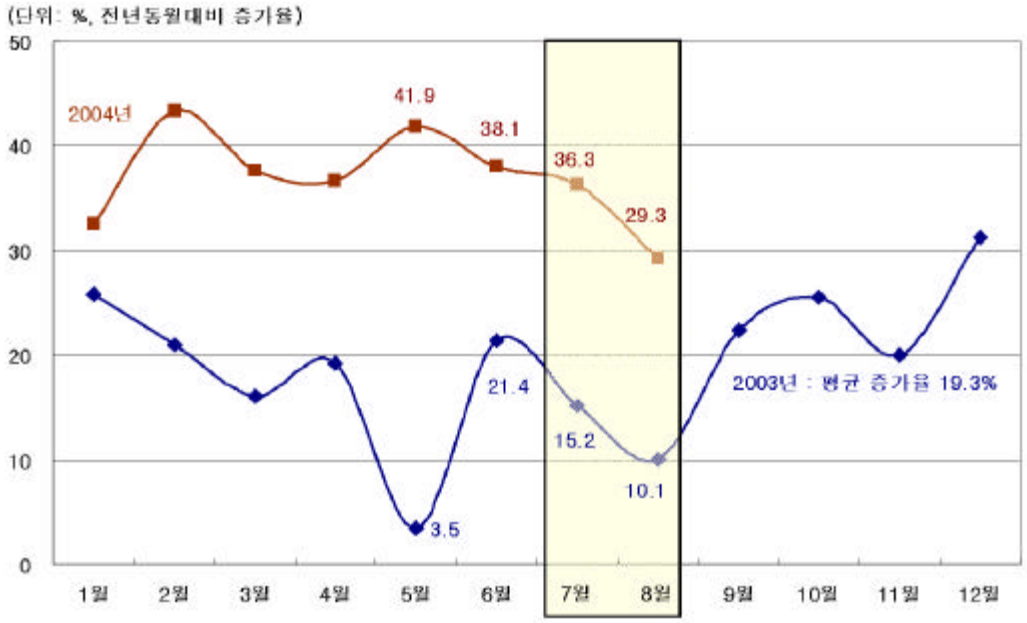
3. 수출 둔화의 원인

○ 최근의 수출 둔화는 일시적 요인이 아닌,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세 둔화와 IT 경기의 회복 속도 저하,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음

- **전년의 수출 호조에 따르는 '逆 base effect'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됨**
  - **올해 1 6월까지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03년중 동일한 월의 증가율과 역의 상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4년 7 8월의 수출증가율이 6월에 비해 낮아지고 있고, 2003년중 같은 기간의 경우에도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최근의 수출 증가율 둔화는 '逆 base effect'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장기 추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음**

< 참고 > 逆 base effect - 逆 base effect란 전년동월의 증가율이 예외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재의 증가율 자체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말함 - 반대의 경우를 base effect라고 함

< 2003년 및 2004년 수출 증가율 비교 >



자료: 산업자원부.
주: 2004년 8월은 1일에서 20일까지 자료임.

-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 둔화가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 :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4분기 전기대비 연율 4.5%에서 3.0%로 1.5%p 하락함
  - **일본** :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경제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1/4분기 전기대비 연율 6.1%에서 2/4분기 1.7%로 급락하여, 일부에서는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EU** : 경제성장률은 1/4분기 전기대비 연율 2.4%에서 2.0%로 0.4%p 하락함

-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 경제의 상황도 수출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1/4분기 전년동기대비 9.8%에서 2/4분기에는 9.6%로 예상치 10%대를 하회하며 경기 둔화세가 가시화

< 참고 > 중국의 고정 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고정투자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42.8% (4월) → 34.8% (5월) → 31.0% (6월)
-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17.5% (5월) → 16.2% (6월) → 15.5% (7월)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들은 5 6월을 기점으로 수출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8월 수출 증가율은 9.3% 및 1.7%의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있음

< 주요 對中 수출 품목들의 증가율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3년 기준)	2003년	5월	6월	7월	8월
對中 총수출	100.0	47.8	73.0	58.0	51.4	35.7
컴퓨터	10.5	47.8	88.2	89.1	31.4	9.3
무선통신기기	8.9	40.0	65.6	41.2	18.2	1.7
철강판	6.8	86.4	35.8	39.2	36.6	23.1
반도체	4.7	111.5	115.5	125.2	94.7	71.9

자료: 무역협회, 산업자원부.
주: 8월은 1일에서 20일까지 자료임.

○ **IT 부문의 수출 호조세는 대부분 물량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IT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제품 가격이 급속 하락하여 급격한 수출 감소가 예상됨**

-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기 시작한 2002년 3/4분기(수출증가율 15.9%) 직전인 2002년 2/4분기(4.9%)와 올해 2/4분기(38.8%)를 비교해 보면, IT 부문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물량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음**
  - **2년 전과 비교해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수출물량지수 증가율은 각각 175.7% 및 79.9% 급증하였으나, 수출단가지수 증가율은 -33.6% 및 1.4%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지속함**
  - **이와 같이 단가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세계 IT 수급 구조상 과잉공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최근의 IT 경기 회복세가 경기 하강으로 전환되어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급격한 수출 감소가 예상**

< 주요 품목별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단가지수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수출물량지수			수출단가지수		
	2002. 2/4	2004. 2/4	증가율	2002. 2/4	2004. 2/4	증가율
총지수	111.8	165.8	48.3 %	83.9	90.9	8.3 %
반도체	145.0	399.8	175.7 %	45.2	30.7	**- 33.6 %**
정보통신기기	131.8	237.1	79.9 %	79.8	80.9	**1.4 %**
승용자동차	98.8	184.2	86.4 %	108.5	118.1	8.8 %

자료: 산업자원부.

< 참고 >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단가지수의 산출 방법

- 수출입 금액의 변동은 수출입 가격이 변동하거나 수출입 물량이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 따라서 만약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가격 요인에 의한 것인지 물량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나누어 파악하여 볼 필요성이 존재함
- 수출단가지수 : 각 상품별로 대표성을 지닌 품목을 선정하여, 각 품목의 수출 중량(kg)으로 측정된 실제거래량으로 나누어 미 달러화 표시로 산출
- 수출물량지수 : 총수출금액을 수출단가지수로 나누어 도출하며, 수출물가지수와는 달리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가격 변동이 파악되기 때문에 순수한 가격 변동 외에 품질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이나 동일 품목 내에서의 고가품·저가품의 수출 구성 차이로 인한 단가 변동도 지수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음

- **(수출 가격 경쟁력 악화)** 환율 요인은 가격 경쟁력 효과가 불분명하며, 물가, 임금의 비용 요인은 우리 제품의 상대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먼저 환율 요인을 살펴보면 원화의 절상 폭이 중국의 위엔화 및 美 달러화(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변동폭은 없음)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미국 및 중국 상품과 경합을 벌일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킴
  - 반면 EU의 유로화 및 일본 엔화에 비해서는 절상폭이 낮아 우리 제품과 EU 및 일본의 상품과 수출 시장에서 경합을 벌일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용 요인중에서 시장 금리는 미국 및 EU에 대해서는 낮은 편이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높아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가장 중요한 비용 요인인 물가, 임금에 있어서는 한국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주요 수출 대상국들보다 높아, 수출 상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가격 반영이 어려울 경우 채산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가격 경쟁력(환율 및 비용) 요인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			한국	중국	미국	EU	일본
환율 요인	對 달러 환율 변동률	('04년 7월기준)	-0.8	0.0	-	-6.6	-7.0
비용 요인	시장 금리	('04년 7월기준)	4.1	3.2	4.5	4.3	1.9
	생산자 물가 상승률	('04년 7월기준)	7.0	4.4	4.0	2.8	1.6
	제조업 임금 상승률	('04년 3월기준)	9.6	-	5.3 (OECD 평균)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환율은 기말 기준
2) 시장 금리는 수준 변수이며, 경우 한국은 국고채(기준), 중국은 재할인율(기말), 미국은 국채 10년물(기말), EU는 국채 10년물(평균), 일본은 국채 10년물(기말) 기준임
3) 물가의 경우 중국은 소매 물가 기준
4)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OECD 제조업 시간당 임금 지수 기준임.

4. 수출 전망

○ 수출 신용장 내도액 증가율, 수출용 수입액 증가율, OECD 경기 선행지수 등의 수출 관련 선행 지표들을 통해 보면, 향후 수출 둔화가 지속될 것이 유력함

-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 둔화) 수출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도 2003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올 3월을 고점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 추이 >

자료: 통계청.
주: 추세선은 3개월 이동평균선임.

· 수출 신용장내도액의 수출 선행 지표로서의 기능성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총수출 대비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수출 추세에 대한 예측 기능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수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내도액과 수출과의 연관성 약화

- 과거에는 수출신용장 내도액을 통해 2 3개월 후의 수출을 전망하였으나, 非신용장 방식의 수출이 늘면서 이를 이용한 수출 전망은 한계를 가지게 됨
- L/C 방식 수출 비중 : 80.3% ('80) → 68.7% ('90) → 27.3% ('00) → 24.1% ('02)

- **(수출용 수입액 증가세 둔화)** 7월 수출용 수입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17.6%로, 2/4분기 증가율인 34.5%에 비해 크게 하락
  - 통상 수출용 수입액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수출 증가율에 비해 약 2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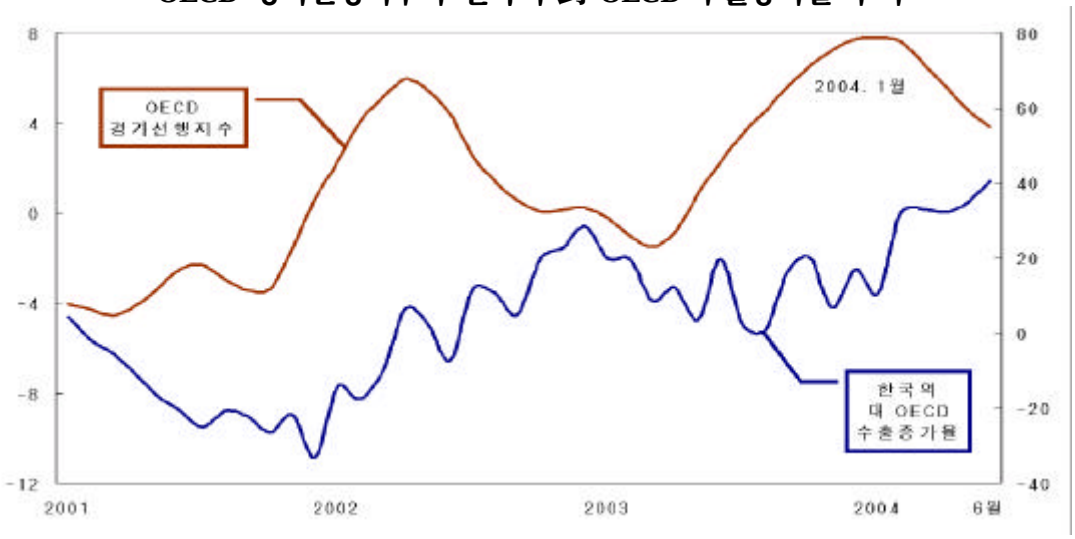
< 수출용 수입액 증가율 추이 >

	2003		2004		
	3/4	4/4	1/4	2/4	7월
전년동기비 (%)	15.5	25.7	23.4	34.5	17.6

자료: 통계청.

- **(OECD 경기 선행 지표 하락)**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04년 1월 정점을 형성한 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 1999년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와 한국의 對 OECD 수출증가율과의 시차는 약 4 9개월(평균 약 6개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2004년 1월 OECD 경기선행지수의 고점을 기준으로 올 7월에서 늦어도 10월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
  - 참고로 2004년 상반기중 한국의 對 OECD 수출 규모는 약 546.3억 달러(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44.3%)를 기록중임

< OECD 경기선행지수와 한국의 對 OECD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OECD, 무역협회.
주: OECD 경기선행지수는 증가율의 6개월 이동평균임.

○ **올해 하반기 이후 수출은 단순한 '逆 base effect'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중국 경제의 점진적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출 둔화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임**

- 2003년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1.0%로 상반기의 17.4%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逆 base effect로 올해 하반기 증가율은 상반기(38.3%)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약 20% 내외** 수준이 예상되며, **2004년 연간으로는 20%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 한편 2005년에는 올해의 수출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逆 base effect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가세하여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가속화될 예상
  - **따라서 2005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크게 하락한 10%대 초반이 전망**

- 단, **유가 급등이 재현되어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IT 경기가 재침체**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수출이 정체(한 자릿수 이하 또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주요 선진 경제들이 일제히 생산 및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예상보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일찍 마무리될 수도 있음
  - 또한 중국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중국 경기의 급속한 냉각이 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함

< 수출 및 수출 증가율 전망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연간(E)
수출액 (FOB)	891	1,047	1,938	1,232	1,253	2,485	2,809
증가율	17.4	21.0	19.3	38.3	19.7	28.2	13.0

자료: 산업자원부.

5. 대응 방안

○ 정부

- **(단기 대책)** 적극적 경기부양책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 정책 필요
  - · 내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유일한 성장축인 수출마저 위축될 경우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요구됨
  - ·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수출의 급격한 둔화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의 환율 운용이 필요함

- **(중장기 대책)** 수출 지역 및 품목 편중화에서 탈피하는 무역 정책과 내수 비중 확대 정책 필요
  - · **수출의 지역 편중도 개선** : 선진국과 중국에 편준된 수출 대상 지역을 중국 이외의 BRICs 등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이 요구 (참고로 2004년 1 8월까지 중국 이외의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3.0%에 불과)
  - · **수출 산업 구조의 선진화** : 에너지 다소비형 - 수입 유발형 - 가격 순응형의 특성을 갖는 중화학 공업 내 소수 품목에만 의존하는 수출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해야 함
  - · **내수 부문의 육성** : 서비스 산업이나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의 선진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기업

-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낮아 채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저가 범용 제품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하는 수출 전략에서 탈피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기술 -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주 원 (3669-4030, juwon@hri.co.kr)